

# 대한양계협회 소식

## 1981년도 정기총회 성대히 개최

— 회장에 이상윤 신기농장대표 피선 —

부회장에는 박준영, 신흥중씨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상윤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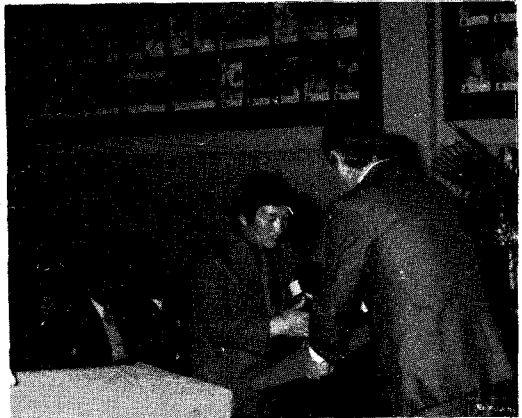
축사를 하고 있는  
오세정교수

본회 1981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2월 18일 (금) 오후 체육회관 대강당에서 전국의 대의원과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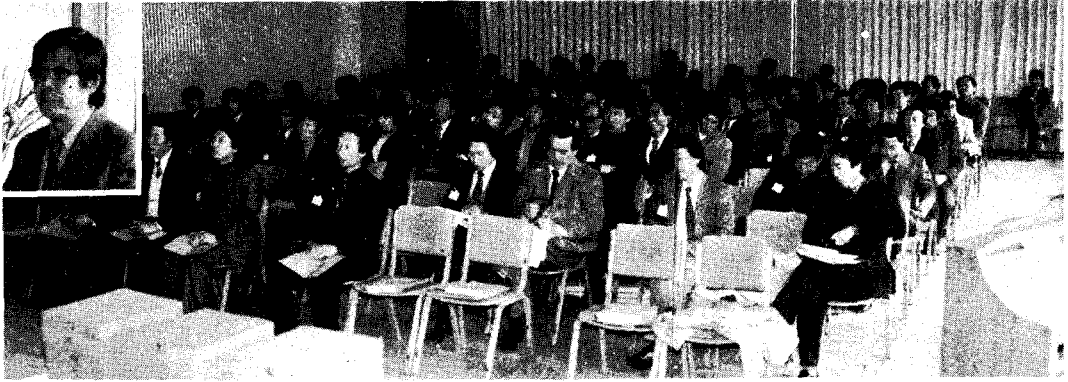
임덕성 사무국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 이상윤 회장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월 회장권한대행의 직무를 맡아 최선을 다하였으나 전국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호응하지 못한 점이 많았음을 생각할 때 죄송스러움을 금치 못한다고 전제하고 그간 양계산업이 농촌의 부업에서 명실공히 국내 중요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나 지난 3년 동안의 악성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절감했으며 협회는 어려운 와중에

서 계란소비확대와 육계 수매비축, 조세감면 기간연장, 사료안정기금 인하건의, EDS 백신수입, 양계안정기금 조성추진 등을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전 양계인은 앞으로 자구책을 강구해 스스로 연구조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업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82년도에는 축협을 통한 군납품 증



〈양계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 장면〉



〈총회 전경 및 진행을 맡은 임덕성 사무국장(左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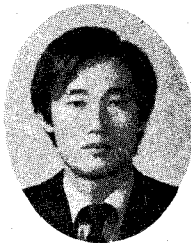
닭고기와 계란의 양이 증대되어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며 머지않아 '86년 아시아게임과 '88년 세계올림픽에 따른 소비증대를 앞두고 질서있는 양계인이 되기위해 무모한 과당경쟁에서 탈피해 합심하여 업계전체가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 공동운명체로서의 발전적인 길을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이기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공생, 공영, 공익을 위한 참여와 협조를 통해 협회를 중심으로 스스로의 권익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총회에서는 그간 양계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축협중앙회 임득렬, 안재기, 홍순동, 사료협회 권 배, 김세현, 월간양계 편집위원 김순재, 임병규씨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본회 경북지부 박규병, 박대현, 경남지부 송기도, 정상구, 전북지부 박인수, 홍용완, 이한주, 전남지부 이관범, 감별분과위원장 정채인, 본회 편집부 남두희씨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박준영 부회장)



(신홍중 부회장)

이어서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회장 오세정 교수는 축사를 통해 79년도 부터 계속된 불황속에 업을 영위해 온 모든 양계인들께 찬사를 보낸다고 전제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생산 측면에서 스스로 조절에 임하지못한 사실을 통감하고 아울러 강제환우라는 방법을 통해 1,2차 환우까지 계속해 수수는 감소되지않고 지속적인 불황의 악순환만 지속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모든 양계인은

다음 남기성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부의 안건 심의에 들어갔는데 1981년도 수지 예산 가결산 및 1981년도 사업실적 심의가 있었다.

이어서 총회는 지난 12월 9일 제 6 차 이사회에서의 임원 일괄사표에 따른 신임원 선출에 들어가 전라남도지부 이종춘지부장의 발의에 의해 이상운씨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대의원 만장일치의 의결이 있는 후 각도지부장을 위시한 전형위원에 의해 신홍중, 박준영씨를 부회장으로 하는 신임원을 선출하였다.

속개된 총회에서는 82년도 사업계획(안) 및



〈남기성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



〈전형위원회가 숙의를 하고 있다〉

수지예산(안) 심의를 원칙적으로 의결통과시키고 새로 선임된 이사회에 사업및 수지예산 집행과 추경등을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닭 경제능력 검정소 처분계획안에 대하여는 이를 처분기로 의결 한 후 폐회하였다.

이날 선임된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 장 : 이상윤

부회장 (2명) : 박준영, 신홍중  
 이 사 (13명) : 강세춘, 김성경, 김진영, 남기성, 노광순, 백명기, 신정일, 유종래, 이규상, 장민기, 정채인, 차상진, 허돈  
 경남, 경북, 전남, 전북도지부장  
 감 사 (2명) : 김인영, 이재식

### 이상윤 회장 도일

본회 이상윤회장은 1월 5일 약 1주간의 예정으로 KAL편으로 도일하였다.

이상윤 회장은 년초 일본 양제업체 지도자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양제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11일경 귀국하여서는 바로 금년도 첫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제 6 차 이사회 개최

81년도의 마지막 이사회인 제 6 차 이사회가 지난 12월 9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남기성 감사의 감사보고를 통하여 양제협회가 회장직무대행 체제하에서 계란수출과 육계비축건의 및 도입사료 안정

기준가격 인하건의, 조세감면 연장건의 등 성과를 거둔데 대한 실적평가와 양제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이사와 대의원 수의 재평가를 하여 성의와 책임성있는 인사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회장이 적정수준으로 축소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회장이 선출되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임원이 구성되어 회장단중심의 강력한 사업추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전 임원들이 협회 일 팔사표를 제출했다.

이날 부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판리의 건

나. '81사업실적 및 수지예산 가결산 승인  
 다. '82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

라. 기타사항

- 1) 총회 준비사항
- 2) 포상대상자 결정

### 이천분회 총회개최

— 회장에 강기필씨 —



(강기필 이천분회장)

본회 이천분회(회장 강기필)는 지난 12월 12일(화) 오전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 개선과 육계계통출하, 회원 입추조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천분회는 주로 육계업을 경영하는 25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실제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젊은 임원들로 중진을 구성하고 연로한 회원들은 뒤에서 자문과 협조를 해 일사불란한 협동속에 본회의 공동적인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개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강기필(노탑농장)
- 부회장 : 윤영철(궁말농장)
- 총 무 : 박송근(서울축산)
- 감 사 : 박광선, 최명락

### 박인수이사 동남아순방 마치고 귀국



(박인수 전북지부장)

박인수(본회 이사, 전북지부장, 동양부회장 대표)씨가 마카오, 홍콩 등 동남아지역을 시찰하고 무사히 귀국하였다.

이지역의 양계산물 소비현황 및 기타 알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전주) 4-3491~2로 연락하시기 바란다.

이 사 : 김교열, 이상일, 이완재, 정재관

사무실 :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장호원리13-1

☎ 2062

### 불우 이웃돕기 운동

본회에서는 연말을 맞이하여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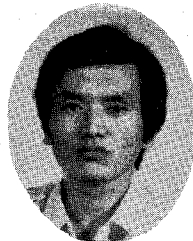
12월31일 본회직원들은 그동안 모은 성금으로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한 천사양로원을 방문하여 불우한 노인들과 고아들을 위로하고 다같이 위로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랑의 성금에 협조해주신 다음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

이상윤희회장, 박준영부회장, 신흥중부회장, 전북지부직원일동, 감별분과위원일동, 안남신여사, 본회직원일동.

### 매10일 간격으로

### 배합사료생산량 통보



(한용균씨)

본회는 농수산부사료과(과장 김정용)의 협조로 매10일 간격으로 배합사료 생산추세(전체적인 흐름)를 필요한 회원에게 알려주기로 하였다.

특히 육계용 전기사료의 생산량은 부로일러의 입추조절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예측되어 육계가격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매월 1일부터 10일, 10일~20일, 21~말일까지 생산되는 배합사료를 표본 조사하는 이 제도를 많은 양축가들이 이용하여 입추조절 및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기바라며 본회는 열서로서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담당전화 752-3571~2 지도조사부 한용균